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901-01

#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 농촌정보문화센터  
이 책의 저작권은 농촌정보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머리말

반려동물이란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을 부르는 말입니다. ‘반려(伴侶)’라는 말은 ‘평생을 함께하는 짝 혹은 동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려동물들을 충동적으로 입양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방치하거나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귀엽다고 무턱대고 데려와서는, 귀찮다고 버리거나 학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와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는 버림받고 학대받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나선 어린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들과 함께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길에 동참해 주세요!

##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 차례

- 반려동물 구조대의 탄생 • 8
- 1화. 민호 동생 뽕뽕이 • 12
- 2화. 자격 없는 사람 • 30
- 3화. 위대한 선택 • 44
- 4화. 슬픈 모정 • 60
- 5화. 지켜 주세요! • 76
- 6화. 그래도 사랑한대요 • 92
- 7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 108





## 등장 인물 소개

### 강마루 (12세)

#### 반려동물 구조대의 리더

수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동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 매 순간 지혜를 발휘하여 곤경에 빠진 동물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오장군 (12세)

#### 커다란 덩치만큼 동물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소년

체력이 좋아 동물 구조에서 힘쓰는 일에 항상 앞장선다.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의감이 넘치는 소년이다.



### 서유리 (12세)

####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녀

동물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장래 훌륭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학대와 유기로 괴로워하는 동물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



### 제시

#### 사람과 동물 모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한 고양이

좌우의 눈 색깔이 다른 오드아이 품종으로 서유리가 키우는 고양이이다. 다른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반려동물들의 고통을 서유리에게 전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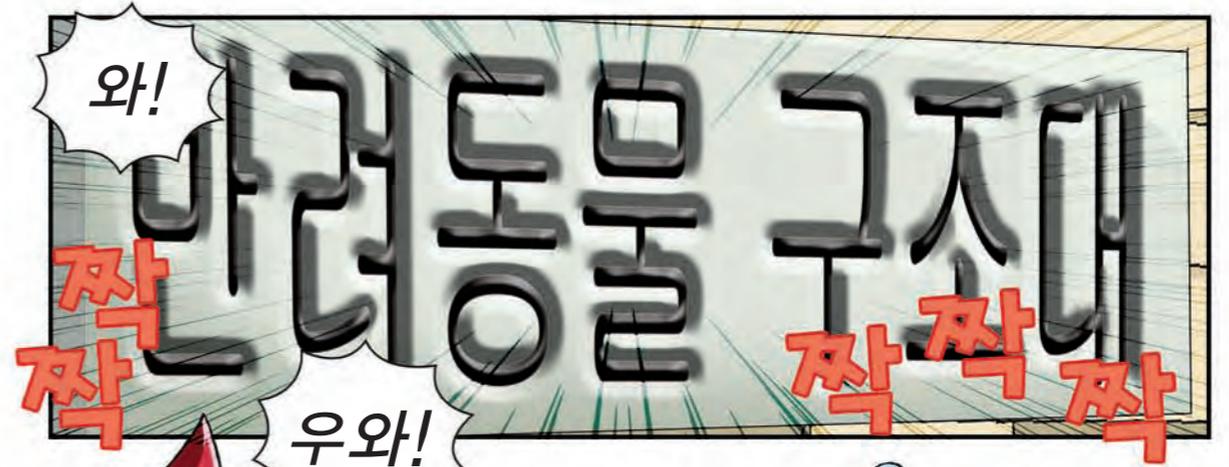
### 수의사 (41세)

#### 강마루의 아버지

강마루의 아버지이자 동물 병원 원장님이다. 동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구조대가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을 데려올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 반려동물 구조대의 탄생!





제1화

# 민호 동생 뽕뽕이

















이대로 돌려보내면  
뽕뽕이는 나처럼  
맘이 통하는 주인을  
못 만날 거 같아!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우리 민호가  
다 컸네.

엄마.



뭐? 우리 뽕뽕이가  
좋은 주인을 만났다고?  
잘됐구나, 호호!

뽕뽕아!  
내가 평생 너를  
돌봐 줄게!

멍멍

살랑

살랑



이렇게  
통하는데  
계속 같이  
살아야겠죠?



마루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야?

대단해!



히히! 사실은  
나도 엄청  
말쟁이였거든!

마루  
네가?



히히

그런데 우리 집 강아지  
뭉치를 키우면서  
배려심과 책임감이  
많아진 거야!



마음이 통하는  
반려동물은 사람도  
변화시키니까,  
민호도 점점  
의젓해질 거라구!

차

# 강아지들은 모두 말썽꾸러기예요!

사람도 어릴 때는 말썽을 부리지요. 강아지나 아기 고양이도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말썽을 피운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입양했던 동물을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 잘 듣는 동물은 없지요. 부모님의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아이가 바르게 자라듯이, 주인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말 잘 듣는 개나 고양이로 길러진답니다.



## ‘반려동물’이라고 불러 주세요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애완(愛玩)’이란 말은 ‘좋아서 가까이 두고 즐긴다’는 뜻으로 인형이나 게임기 같은 ‘물건’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려(伴侶)’는 ‘평생을 함께하는 짝 혹은 동무’란 뜻으로, 가족처럼 함께 사는 동물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지요. 이제부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꼭 ‘반려동물’이란 말을 쓰도록 합시다.



##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꼭 필요한 건 책임감!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책임감이예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책임감이지요.

입양을 결정했다면, 다음의 내용을 읽고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세요.

### 첫째, 지금 내린 결정이 충동적인 건 아닌가요?

귀엽다거나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지 마세요! 그것이 동물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둘째,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았나요?

개는 보통 12~15년 정도 삽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몇 살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때도 개를 돌볼 상황이 될까요? 또, 개가 늙거나 병들면 돌보는 게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요.

### 셋째, 가족 모두가 동의했나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되면 사료비, 병원비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입양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건 어때요?

‘동물 보호소’는 주인을 잃은 동물들을 잠시 보호하거나 주인이 없는 동물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요. 어린이 혼자서는 입양할 수 없고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물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서랍니다.



##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

하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방문하여 [유기 동물]을 클릭하세요.

둘, [입양 안내]를 클릭하여 가까운 동물 보호소 연락처를 찾아 연락해 보세요.

셋, [공고]를 클릭하면 주인을 찾고 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어요. 10일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입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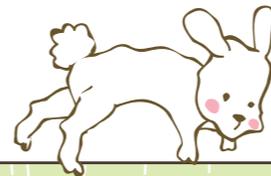
넷, [보호 중 동물]을 클릭하면 주인을 못 찾아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동물이 있으면 해당 동물 보호소와 상담해서 입양할 수 있지요.



## 놀라운 이야기

### 가장 장수한 개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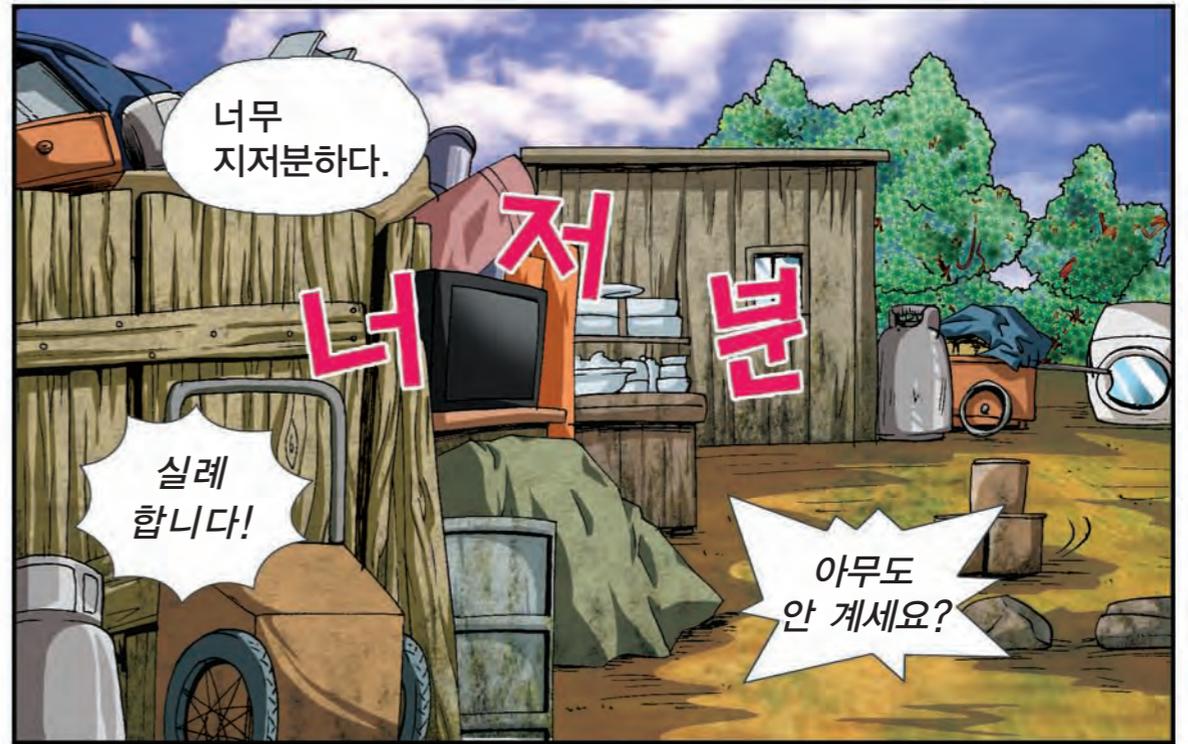
기네스북(Guinness book)에 올라와 있는 가장 장수한 개는 호주의 "블루이(Bluey)"랍니다. 블루이는 1914년 호주 빅토리아 주 락체스터 시에 사는 레스 홀(Les Hall) 씨에게 입양되었는데, 그곳에서 목축견(牧畜犬) 주인이 소나 말, 양 따위의 가축을 치는 일을 도와주는 개)으로 소와 양을 몰며 20년 가까이 살았지요. 블루이가 1939년 11월 14일에 생을 마감했을 때의 나이는 정확히 29년 5개월이었답니다.



제2화

# 자격 없는 사람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이렇게 종일  
고물을 주워 봐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생활인 걸.



그래서 이렇게  
대책 없이  
동물들을  
데려다 방치  
하신 건가요?



아주머니!  
이러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동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 고양이  
정말 모르세요?

몰라!



이 아이는 아주머니가  
키우시던 고양이에요.  
탈출해서 저희한테  
온 거고요!



뭐? 내가  
키웠던  
고양이라고?!



아주머니는  
그저 동물을  
수집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반려동물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요.

부끄럼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병들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고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동물 보호소로  
당장 보내세요!  
이렇게 방치하는 건  
동물 학대일 뿐이니까요!

내가  
동물 학대를  
했다니.

후후



# 동물은 수집품이 아니지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동물을 '가지는 것' 과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답니다. 한가쪽으로 생각하고 돌보겠다는 책임감이 없다면, 아예 키우지 않는 게 낫지요.

##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아십니까?

애니멀 호더는 '자신의 사육 능력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자기가 동물을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Hoarder'는 '많이 모아서 저장하거나 쌓아 두는 사람'을 뜻하지요. 따라서 애니멀 호더는 동물을 수집품으로 생각하여 마리 수를 늘려 가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 질환자로 볼 수 있어요.

## 애니멀 호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이예요. 그 외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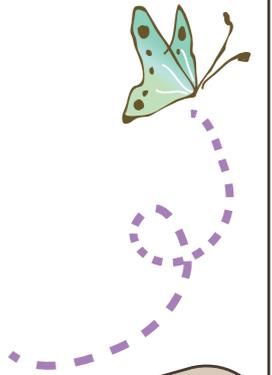
- 1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더러워진 환경에 그대로 둔다.
- 2 사료나 물을 제때 주지 않거나 굶기는 일이 잦다.
- 3 반려동물이 병에 걸려도 동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데려갈 능력이 안 된다.
- 4 반려동물을 피약벌에 두거나, 비를 맞고 있어도 챙기지 않는다.
- 5 키울 상황이 안 되는데도 계속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려온다.
- 6 주위에서 항의해도 화를 내거나 무시한다.



##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동물 괴롭힘은?

동물을 때리는 것만 괴롭히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동물 괴롭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아지를 하루 종일 묶어 둔다.
- 강아지는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혼자 내버려 둔다.
- 산책을 시켜 주지 않는다.
- 더러워도 목욕을 시켜 주지 않는다.
- 털이 뭉쳐 있어도 빗질을 해 주지 않는다.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밥을 제때 챙겨 주지 않는다.
- 물통이 비어도 채워 주지 않는다.
- 자고 있는 강아지를 귀찮게 한다.
-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을 먹인다.
- 좁은 공간에 가둬 놓거나 높은 곳에 올려 둔다.
- 강아지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 대소변을 치워 주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내버려 둔다.
- 꼬리를 잡아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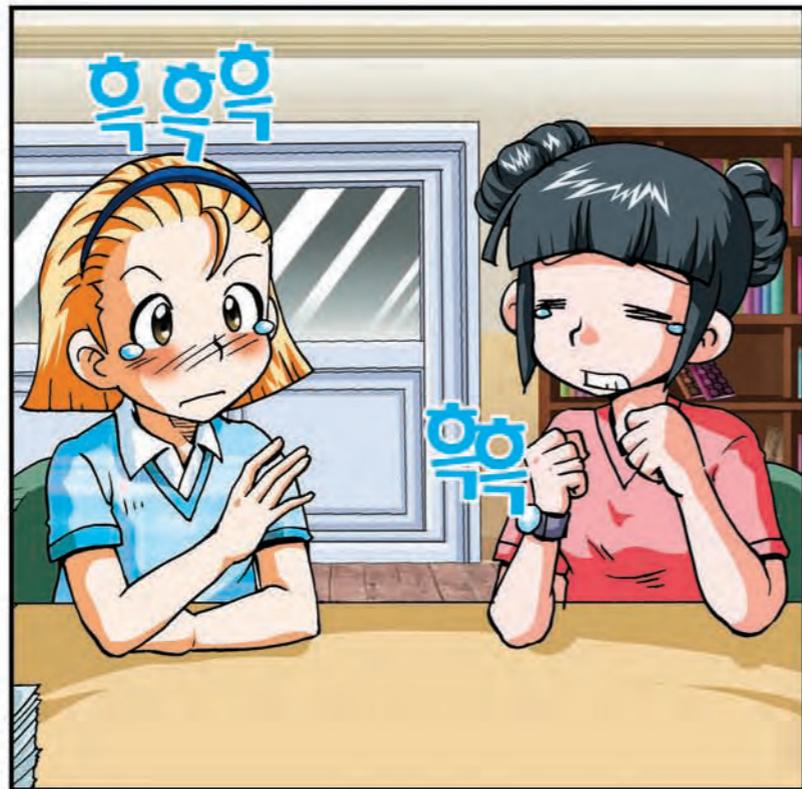
**놀라운 이야기**

**달콤한 초콜릿도 강아지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먹이면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를 하거나 지나친 흥분 상태를 보일 수 있지요. 또 양파를 먹이면, 개나 고양이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를 파괴하여 악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닭고기는 달 뼈의 날카롭게 부서지는 성질 때문에, 위나 장에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피가 섞인 용변을 보거나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밖에 우유, 기름기 많은 생선, 마른 오징어 등도 주의해야 할 음식이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음식 하나하나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제3화

# 위대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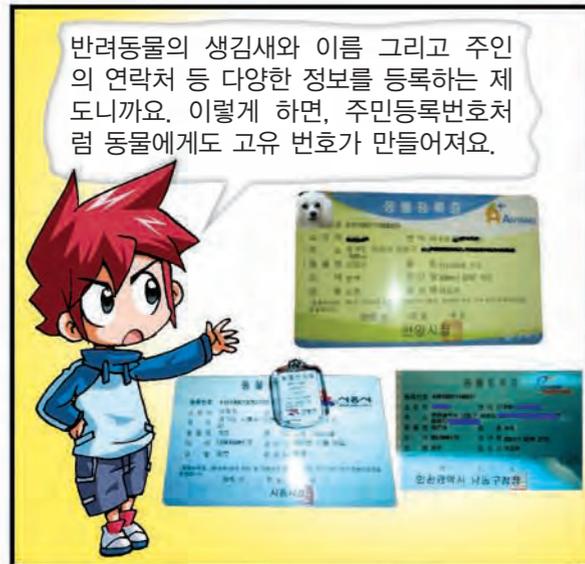














아빠, 시작해 주세요!

스쿠



칩이 있구나!

야호!

설마.

오~



자, 번호를 한번 검색해 볼까?



동물등록보호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있구나. 이름이 미미고 주인도 헤진 이가 맞구나.



미미야,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쫘 쫘



그럼 우리 키키는 어딴가요?

글쎄요. 찾아보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으아앙



사랑해, 미미야!

나도 동물 등록을 해 둘 걸!

헤진씨 선택이 탁월했던 거지!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그걸

# 지금 바로 '동물 등록'을 하세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는 이런 대목이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겐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바로 '동물 등록'을 해 주는 일입니다.

## 동물등록제를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처럼 반려동물에게 고유 번호를 주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강아지의 성별과 품종, 나이는 물론 주인의 주소와 연락처도 함께 등록하여,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지요. 현재는 부산, 제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행된답니다. 동물 등록 의무 지역에 살면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소중한 반려동물을 꼭 등록하세요.

- 1 가까운 동물 병원이나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 2 동물 등록 신청서에 주인의 이름, 연락처, 강아지의 이름 등을 기록합니다.
- 3 주사기를 이용하여 작은 마이크로 칩을 강아지 등 부분에 삽입합니다. (또는 전자 태그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 4 정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마이크로 칩 번호(고유 번호)와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5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동물 분실 신고'를 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때, '동물 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된 정보가 동물 병원과 동물 보호 관련 시설로 전달된답니다. '동물 분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1 검색창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입력하거나 www.animal.go.kr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2 상단에 있는 '유기 동물·동물 보호소'를 선택하여 아래에 있는 '분실 신고'를 클릭합니다.
- 3 입력란에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사진, 연락처를 등록합니다.
- 4 수시로 접속하여 '공고' 페이지나 '보호 중 동물'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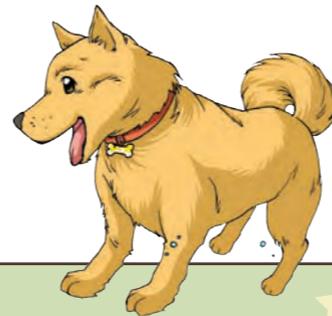
※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으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놀라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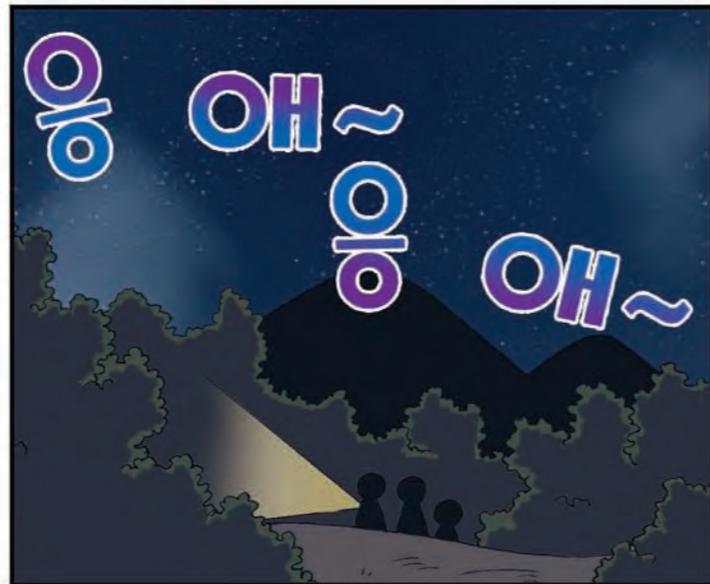
### 개의 능력

개의 후각은 매우 뛰어나서, 약간의 음식물을 흘리고 나서 100만분의 1로 물에 희석시켜도 찾아낼 수 있답니다. 또 개의 청력은 사람의 8배나 되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2만 5천Hz(헤르츠)보다 더 높은 3만 5천Hz의 소리도 들을 수 있지요. 또한 하운드 종(種)의 경우 최대 시속 50km(사람은 시속 13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개는 진동을 잘 느껴서 일본에서는 지진을 미리 감지하는 데 사용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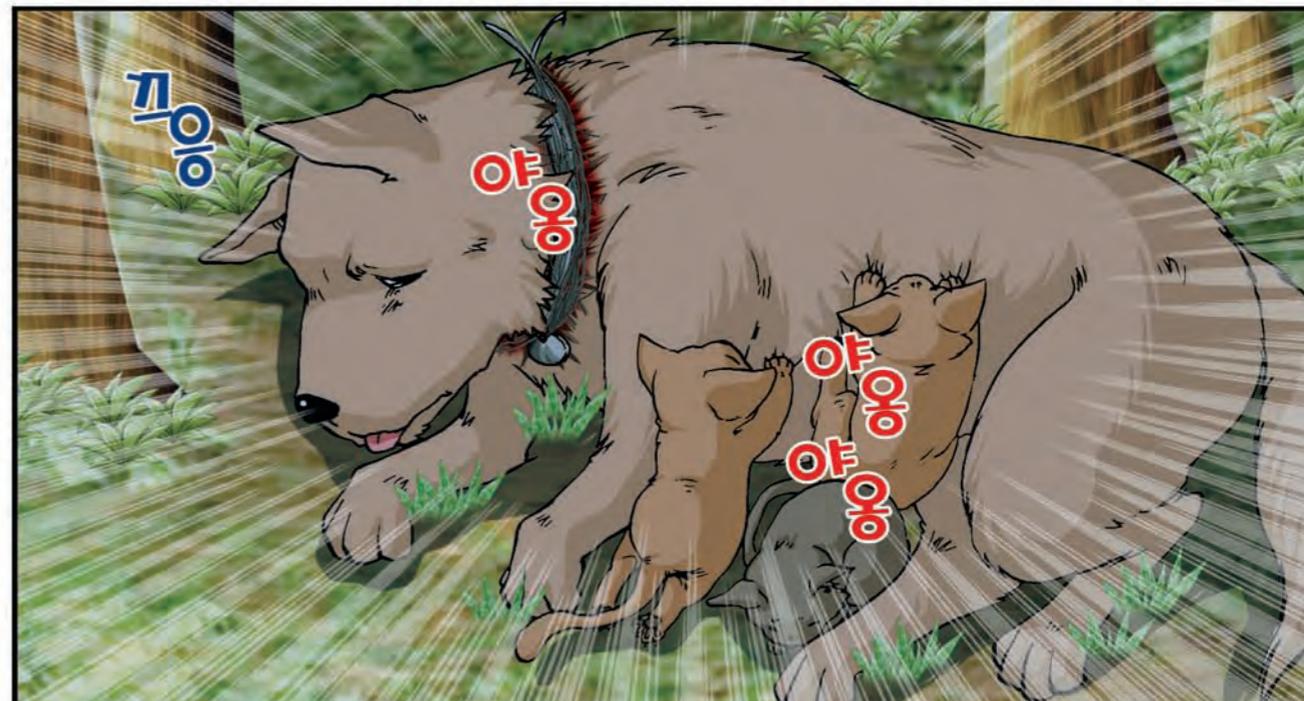


제4화

슬픈 모정









아픈 개가  
아기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살펴보자.



조심해  
마루야!  
물지도 몰라!



개의  
목에 인식표가  
있어.



뭐야, 이거!  
사인펜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지워 놨잖아!



그럼  
버려진  
개란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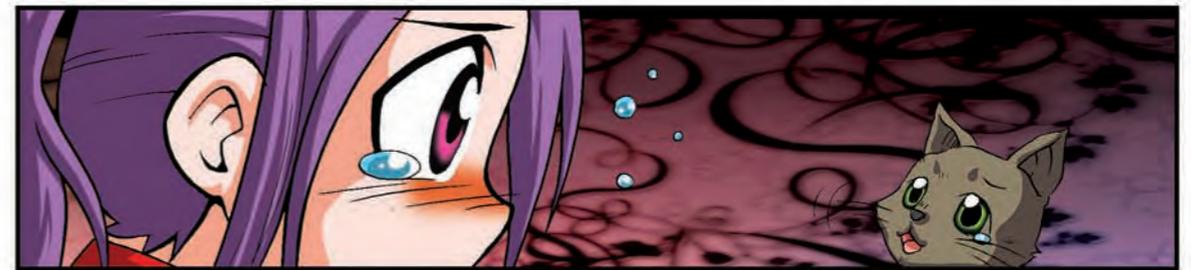


응, 아무래도  
새끼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버림  
받은 것 같아!



너무해!  
강아지도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을  
함부로 버리지?

맞아,  
정말 나빠!



제가 그러는데,  
어미 개가 헤어진  
자기 강아지 대신  
아기 고양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아픈 몸으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기들을  
돌봤다니,  
대단하군!

게다가  
개랑 고양이는  
양숙이잖아!





앗! 이럴 때가 아니야!  
어미 개 목에 감긴  
철사 줄부터  
빨리 풀어 줘야  
해!



철사 줄이 목을  
파고 들어서 상처가  
뾰고 있어. 빨리  
우리 아빠 병원으로  
데려가자!



놀랍구나!



며칠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개 덕분에  
아주 건강하다.



다행이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자! 이제  
아기 고양이들은  
동물 보호소로  
보내야지?



누가  
입양하면  
좋겠는데.

일단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자!



혹시 동네에  
키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벽보를 붙여 볼까?



**공고문**

야산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과 어미 개의  
소리로 밝혀졌어요.  
혹시 이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분들은 저희 구조대를 찾아주세요!



회복되려면  
3주는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  
주겠니?



실례합니다!  
아기 고양이를  
입양하고  
싶은데요.

**배꼽**



**넵!!!**



어미 개를 버린  
사람이 있어서  
어제는 야박하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마음 따뜻한  
사람도 많구나!

맞아!  
꼭 나 같아!

장군이 넌  
공부 좀 해!  
중성화 수술도  
모르다니 창피한  
거 아냐?

##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 - 중성화 수술!

사람은 아이를 낳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지요.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되는지,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부모의 이런 고민 속에서 태어났답니다. 이것을 '가족계획'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동물은 '가족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무조건 새끼를 낳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어미의 어려운 처지가 고스란히 새끼들에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해 준답니다.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지요.

### 중성화 수술이란 무엇일까요?

중성화 수술은 개와 고양이가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는 수술이에요.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이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새끼를 많이 낳아 굶겨 죽이는 일이 없게끔 시행하는 수술이지요. 중성화 수술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도 지켜 주고 가족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답니다.

### 중성화 수술의 효과

먼저, 성격이 온순해집니다. 간혹 주인을 공격하던 개나 고양이라도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암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특유의 공격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암컷이 나이가 들면 가출을 해서 새끼를 배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도 중성화 수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이나 난소종양(난소에 생긴 일종의 암)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길 고양이도 중성화 수술이 필요해요

도심에는 주인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길 고양이'들이 많답니다. 그들은 오랜 떠돌이 생활로 굶주리고 건강이 나빠져 있지요. 그들이 낳은 새끼 고양이들은 대부분 어려서 병들거나 굶어 죽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어미가 되더라도, 몰래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근근이 살아가겠지요. 길 고양이들은 짹짹기를 하려고 밤늦게도 울어 대지요. 이 소리가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TNR'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TNR은 'Trap Neuter Return', 즉 길 고양이들을 사로잡아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고 회복 기간이 지나면 제 자리에 다시 놓아 주는 프로그램이지요. 길 고양이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아 주며, 어미 고양이의 건강도 지키면서 새끼 고양이도 잘 돌볼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야간 소음 문제도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인들이 자기 고양이를 잘 보살펴서 고양이의 가출을 막는 일이겠지요.

### 놀라운 이야기

### 고양이는 새끼를 얼마나 낳을까요?

고양이는 생후 5~10개월이 지나면 임신이 가능해요. 연 2~3회 번식을 하지요. 임신 기간은 약 65일이며, 한 번에 4~6마리를 낳을 수 있답니다.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고양이 한 마리가 생애 동안 낳을 수 있는 새끼의 수는 2~3백 마리에 달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답니다.



제5화

지켜 주세요!









쫘쫘, 너희들은 아직 동물보호법을 모르고 있구나! 동물을 학대하면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돼!

헉!

※ 2012년 2월부터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그래! 꺾은 나의 실수야. 하지만 내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겠어?



흥, 그래? 그렇다면 잠시 너의 신발 밑창을 보여 줄래?



신발 밑창?

푹



강아지 옆구리에 찍힌 자국이 네 신발 자국과 똑같구나!

헉!



빨리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야겠다!

저 손 좀 봐!

찰칵



내 손이 왜?

네 손에 강아지 목줄 잡아당긴 자국이 있잖아.



저것도 찰칵!

대체 목줄을 얼마나 잡아당긴 거야!



우르르르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어딜 도망가! 거기 안 서!

떨쩍



그만 뒤! 우선 강아지를 아빠한테 데려가서 치료부터 해야겠어. 근데, 이 천은 뭘까?

시름



어?

아무것도 없잖아? 유리야, 제시를 통해서 저 강아지의 집을 좀 알아봐 줘!





※ 2012년 2월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후  
그 천을 지키려다  
보물찾기를 하던  
아이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롱이는  
아저씨가 묶어  
놓은 맹세의  
천을 지키려다  
아이들한테  
발로 차이기까지  
했다고요!



.....  
아롱아!  
멍멍  
으앙



아롱이는 여러분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족의 보물을  
목숨 걸고 지켰던  
거라고요!



으앙  
아빠! 나  
게임기랑 장난감  
안 사 줘도 되니까,  
아롱이랑 같이  
살게 해 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마.  
미안하다.



구조대를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일 같아!

맞아!



장군아,  
난 네가 아까  
그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장군이야!  
오장군!



그래, 장군이!  
잘난 척 장군에  
도망치기 장군!  
안 그래?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름값 좀 해!



# 똑같이 아파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알려서 '반려동물'로 부르도록 제안했지요. 이 심포지엄이 있은 후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날이 증가하는 동물 학대와 괴롭힘, 유기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법을 점차 강화하고 있어요.

## 동물보호법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있답니다. 바로 '동물보호법'이에요. 사람들도 필요할 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버려지거나 학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요.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 제정되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지요. 다음은 동물보호법에서 심각한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한 내용들이에요.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길바닥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이는 행위.
- 동물의 식성이나 생태 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다른 동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 사람의 생명·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으려 할 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채액을 채취 혹은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열·전기·물을 사용하는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어요

2012년 2월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이제 동물 학대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 2013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제(자세한 사항은 58~59 페이지 참조)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여 실종된 동물을 찾는 데 큰 효과를 보이면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이외에도 농장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다양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갖추어 시행하고 있지요.



### 놀라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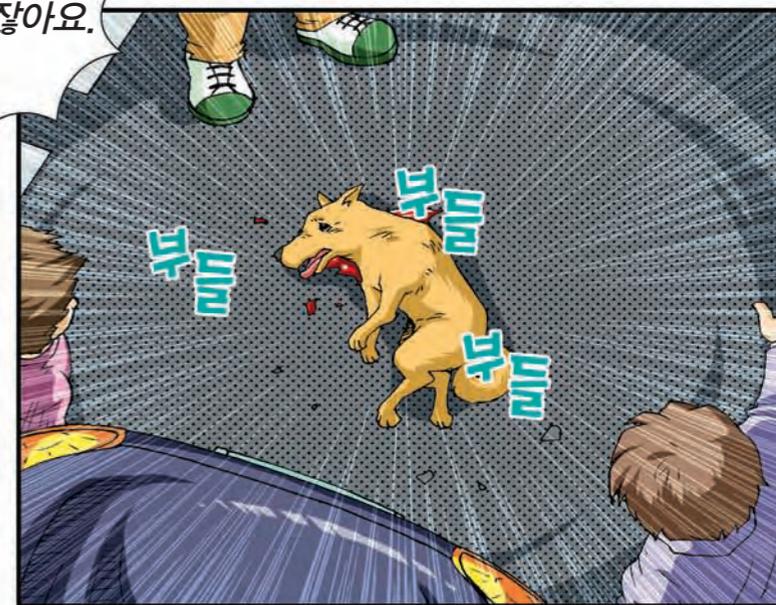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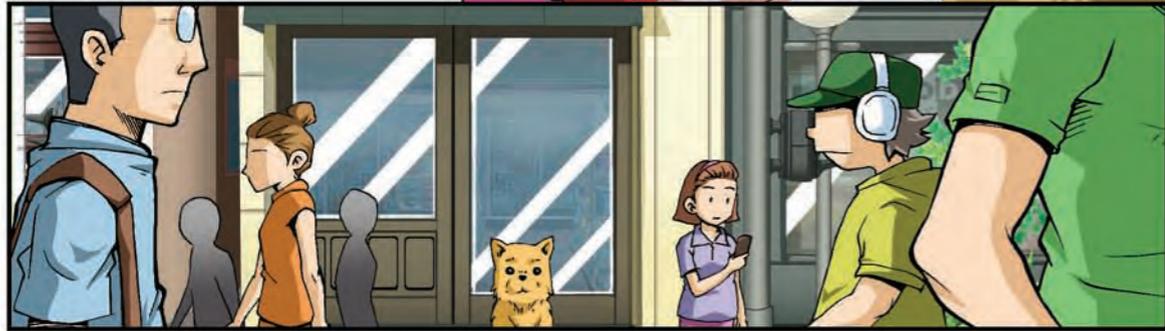
## 잘못된 배변 교육이 가져온 불가사의한 일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입양한 강아지가 배변을 잘 못 볼 때마다 매를 들어 심하게 야단을 쳤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강아지가 아예 배변을 보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강아지는 집 안에 서만 키우고 바깥출입은 하지 않았지요.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하루 종일 관찰해 보니, 강아지가 자신의 배변을 사료처럼 먹어치우더라고요. 주인의 잘못된 배변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가 이런 엉뚱한 행동까지 했던 것이지요. 반려동물을 교육시킬 때는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야단치기보다 먼저 자신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야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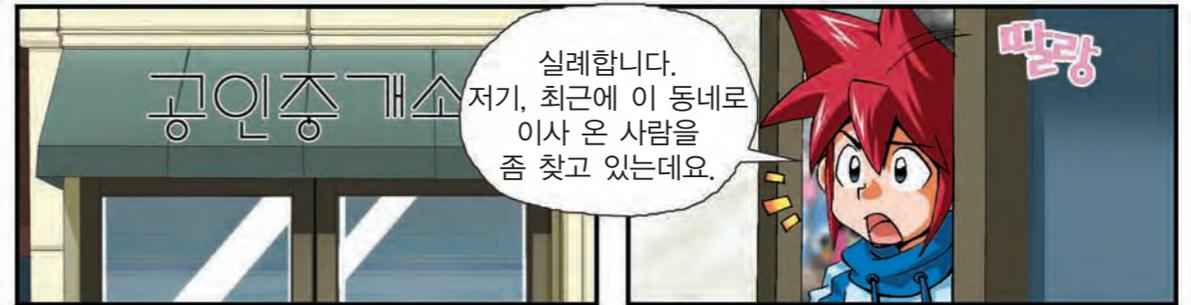


제6화

# 그래도 사랑한대요







# 분식집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인데, 주인이 뚱뚱하대.



실례합니다, 혹시 강아지를.....



뭐야?

아, 아니에요.



혹시 이 개 모르세요? 주인이 뚱뚱한 사람이라던데요.



나 안 뚱뚱하거든요!



혹시 이 개 아세요?



어머? 어디서 그런 천박한 개를!



참 나, 개 차별하시네!

체리 가자~

양양



뭐 찾은 거 있어?

아니.



공인 중개사 아저씨가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냐?

으악



뚱뚱하고 손이 두껍다고 했지?

응



혹시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진 건 아닐까?

설마!



아냐. 어쩌면 진짜로 날씬해졌을 수도 있어.



개는 주인의 형체감과 체취로 기억하지, 정확한 모습으로 기억하진 않아.



그럼 날씬한 사람도 찾아야 한다는 거야?

에쿠~

후후, 그럴지!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철썩

너희는 누구니?



반려동물 구조대예요. 혹시 이 개 아시죠?

깜짝



몰라, 그런 개.

지금 이 개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요.

힝



힝

뭐?!

상태가 안 좋아요.



울떡

울떡

울떡

이 개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난, 이제 그 개 몰라!



하지만 이 개는 주인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만나 주세요.



7년 동안 정들여 키웠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버린 거야. 난 우리 해피를 만날 자격이 없어.



콧



뭐야! 자기 생각만 하잖아.

어떡해.



터벅

터벅

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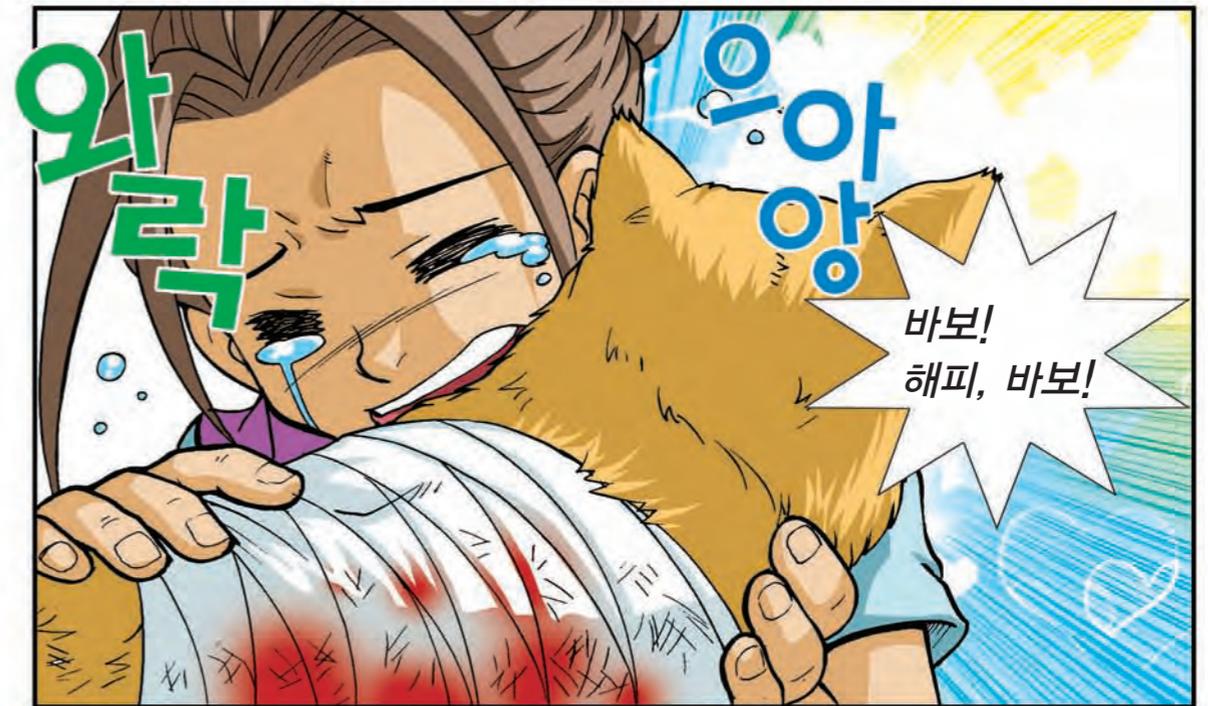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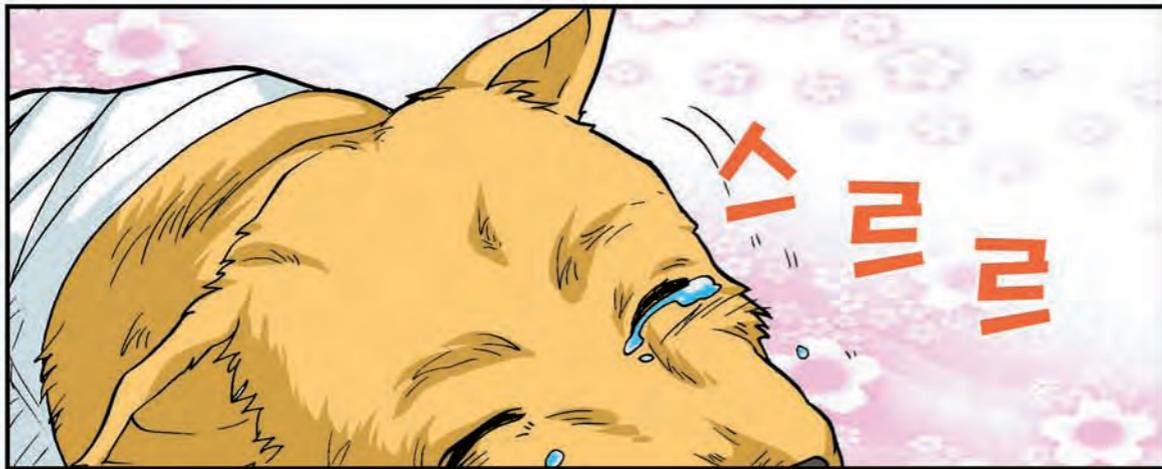
돌아가자, 사람 마음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개에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

흑흑

그 개가 이런 얘기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보고서

2010년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버려져 동물 보호소에 오는 반려동물의 수가 10만 마리를 넘는답니다. 그중 6천 8백여 마리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지요. 나머지 동물들은 보호 시설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거나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호 시설에 오지 못한 반려동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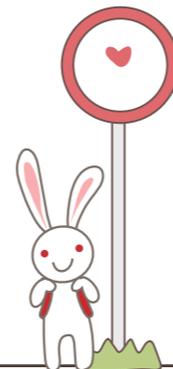
## 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400여 개의 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교외 지역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보호소도 있고, 동물 병원에서 병행하여 운영하는 보호소도 있지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동물 보호소를 찾을 수 있답니다.

동물 보호소는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면서 2주 동안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지요. 법에 규정된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지만, 2주 동안 게시하여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답니다. 공고 게시판에는 보호 중인 동물의 사진과 발견 날짜, 발견 상황 등을 상세하게 올려놓아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동물로 판단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는 입장을 진행하지요.

## 버려진 동물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

1. 주인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리며 살펴본다.
2. 주인이 오지 않으면, 인식표가 있는지 확인하여 인식표의 연락처로 연락한다.
3. 주인도 오지 않고 인식표도 없다면 아래의 장소로 신고한다.
  - 가까운 동물 병원이나 동물 보호소
  - 시, 군, 구청의 동물 담당자
  - 동물보호 콜 센터 (1577-0954)



## 신고된 유기 동물들은 어떻게 되나요?

**1** 유기 동물 보호 센터로 옮깁니다.

- 먼저 목욕을 시키고, 나이, 품종, 건강과 영양 상태를 확인합니다.
-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를 합니다.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인에 대한 정보를 찾습니다.

- 인식표나 마이크로 칩을 통해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주인에게 연락합니다.
- 실종 신고된 동물들의 정보와 비교해서 주인을 찾습니다.



**3** 공고를 통해 주인을 찾습니다.

- 만약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가 동물 보호 센터에 있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잃어버린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 이상은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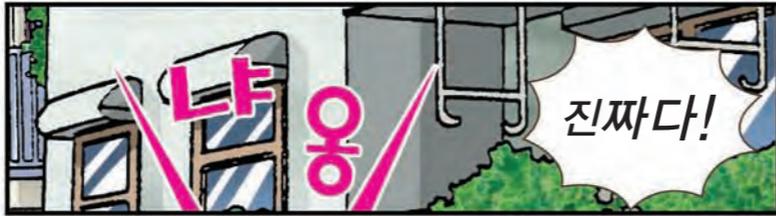
**놀라운 이야기**  
**주인을 살리려고 구조대를 부른 개**

미국의 4살 난 개가 91구조대(우리나라의 119구조대)에 전화를 걸어 위험에 처한 주인을 구했다네요. 독일산 로트와일러 중 "페이스"가 주인공이예요. 페이스는 주인인 리나 비슬리 씨가 간질 발작으로 휠체어에서 떨어지자, 91에 전화를 걸어 수화기에 대고 급박하게 짚음으로써 구조대가 긴급 출동하게 만들었답니다. 페이스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코로 단축 다이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도록 훈련받은 보호견이래요. 구조대가 출동했을 때 문을 열어 준 이도 페이스였다네요.



제7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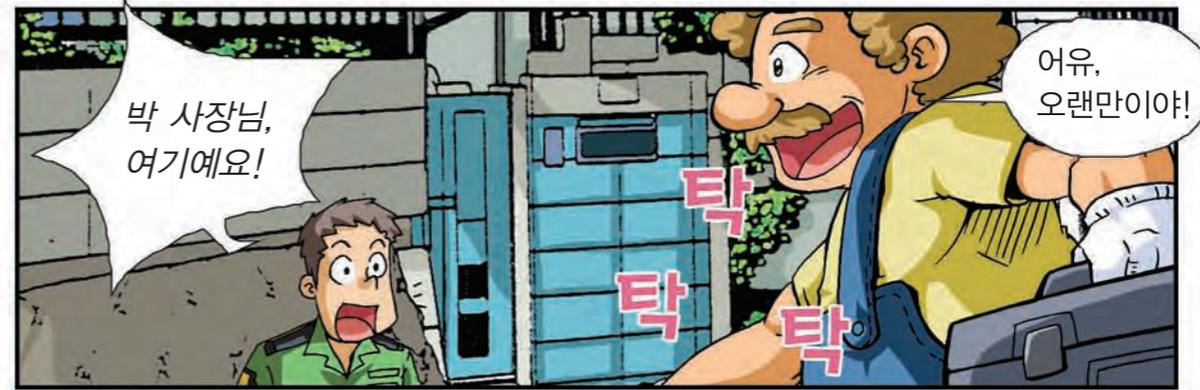
모두 함께 힘을 모아















# 동물 보호에 함께 나서요!

우리나라에서 동물 보호를 전담하는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지요. 이곳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운영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안전장치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서 소개된 '동물보호법'은 이런 업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지요. 이외에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을까요?

## 동물보호감시관을 아세요?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지요. 우리나라는 초기 시행 단계라서 시·군·구청에 동물보호감시관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어요. 2010년 현재 300여 명의 동물보호감시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도 동물보호감시관이 있지요. 이들은 동물 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반려동물과 주인의 심리·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등 동물과 주인 모두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 동물보호감시관의 주요 업무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 보호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이에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지요.

-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관리와 지도.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처리함.
-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교육.
- 동물 (위탁) 보호 시설의 운영을 관리 감독함.
- 동물 판매업자 및 동물 장묘업자(동물을 위한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의 관리 감독 및 교육.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 그 외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 진행.

## 동물보호 콜 센터(1577-0954)를 이용하세요!

학대받는 동물을 목격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우리 동네 동물보호감시관은 누구인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동물 보호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동물보호 콜 센터가 열렸어요.

동물의 복지 증진과 민원 해소를 위해 시작된 동물보호 콜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 놀라운 이야기

### 포기하지 않은 개

2011년 4월 27일 미국 애라배다 주의 노스 스미스필드를 거대한 토네이도 (회오리바람)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이때 한 살 배기 강아지 "메이슨"이 토네이도에 휩쓸려 사라졌다가, 폐허가 된 마을에 뒷다리만으로 기다시피 하여 주인을 찾아왔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메이슨의 두 앞다리는 완전히 부러져 겨우 붙어 있었는데 냄새를 맡으며 주인을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진 메이슨은 완전 탈진 상태에 영양실조로 평소 몸무게의 절반밖에 안 되었지만, 3시간 반 동안의 수술로 두 앞다리를 고칠 수 있었지요.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은 개 - 메이슨을 위해 수술비를 기부했어요. 메이슨을 되찾은 주인은 죄책감 때문에 메이슨을 안고서 영웅이었습니다.





##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발행일	2011년 10월
발행	농림수산식품부(www.mitaff.go.kr)
기획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제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www.cric.re.kr)
글	양승복, 윤성필
그림	문인호
교정·교열	주상목
편집·디자인	비온뒤 스튜디오
인쇄	(주) 타라티피에스

이 책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대한수의사회 노천섭 사무총장  
 (주)대교 김지연 출판기획 편집장  
 (사)만화가협회 제효원 사무국장

# 출동! 반려동물 구조대

